

이하면, 그 소리가 드높아 멀리까지 들리니, 경(磬)<의 장식>에 적당하다” 하였다.

건고(建鼓)

『악서』에⁶⁷⁾ “<『예기』> 「명당위」(明堂位)에 은(殷)나라의 영고(楹鼓)⁶⁸⁾라 하였고, 「주관」(周官)으로 고증하면 대복(大僕)이 노고(路鼓)를 대침(大寢, 정전(正殿)의 문밖)에 세우고,⁶⁹⁾ 또 『의례』(儀禮) 대사의(大射儀)에 ‘건고(建鼓)는 조계(阼階)의 서남(西南)에 있다.’ 하였는데, 그 북인 즉 세운 기둥[楹]이다.⁷⁰⁾ 이래서 영고(楹鼓)는 한 개의 기둥과 네 모[稜]⁷¹⁾로 되었다. 북을 그 끝에서 펴낸 것이 사식(四植)의 환규(桓圭, 홀(笏))와 같다. 『장자』(莊子)에 이르기를 ‘건고(建鼓)를 엮는다.’⁷²⁾고 하였는데, 북을 엮을 수 있다면 북을 기둥으로 꿰어 놓는[置]⁷³⁾ 것이니, 『시경』 상송(商頌)⁷⁴⁾에 말하는 ‘우리 도(鞀)와 고를 놓다.’⁷⁵⁾가 이것이다. 위(魏)나라와 진(晉)나라 이후에 다시 상(商)나라⁷⁶⁾의 제도를 부활(復活)하여 북을 꽂고[植] 역시 건고(建鼓)라고 하였다. 수(隋)와 당(唐)에 이르러서는 또 나는 백로(白鷺)를 그 위에 얹어 놓았는데, 송(宋)도 그대로 답습하였다.⁷⁷⁾

그 제도는 높이⁷⁸⁾가 6재[尺] 6치[寸]이고, <북통> 가운데에 기둥⁷⁹⁾을 꽂고, <북통 위에>

	股的 길이	股的 너비	鼓의 길이	鼓의 너비
황 종	9촌8푼	5촌2푼	1척4촌6푼	4촌7푼
임 종	1척	5촌	위와같다	4촌8푼
청 협 종	9촌4푼	위와같다	1척2촌8푼	4촌7푼

66) 『천도호주주례』 「주례경도」 예도17a. ‘鐘磬總圖’.

67) 『국조오례의서례』에는 建鼓·朔鼓 및 應鼓가 없다. 儀禮 大射부터가 『악서』, 권116.5a에 있다.

68) 楹은 기둥이고, 영고는 기둥으로 북을 꿰뚫은 것이다. 『예기』 「명당위」에 하후씨의 鼓足, 殷의 楹鼓, 周의 縣鼓란 세 가지 북이 있다. (“夏后氏之鼓足 殷楹鼓 周縣鼓”)

69) “司馬가 사냥할 때 寢門에…”(『세종실록』, 권128. 雷鼓)와 같은 뜻이다. 이 대목은 ‘세운다[建]란 말을 강조한 것이다. 『주례』 「하관」 大僕.)

70) “夏加四足 謂之足鼓 商貫之以柱 謂之楹鼓 周縣而擊之 謂之縣鼓.”(『송사』, 권129 지82 약4).

71) “한 개의 기둥과 네모”는 圖解의 “柱五 各高一尺九寸”이다.

72) 『장자』 「天運」 6.

73) 놓다[置]는 “殷人置鼓”라는 말같이 ‘植’과 ‘建’과 같은 뜻이다.

74) 『시경』, 권20 「商頌·那」. “置我鞀鼓”.

75) 鞀는 鼗와 같다. 『시경』 「周頌·有瞽」에서도 ‘置’가 강조된 것이다. “商頌言 置我鞀鼓 則鞀與鼓 同植, 非有播擊之異.”(『악서』, 권117.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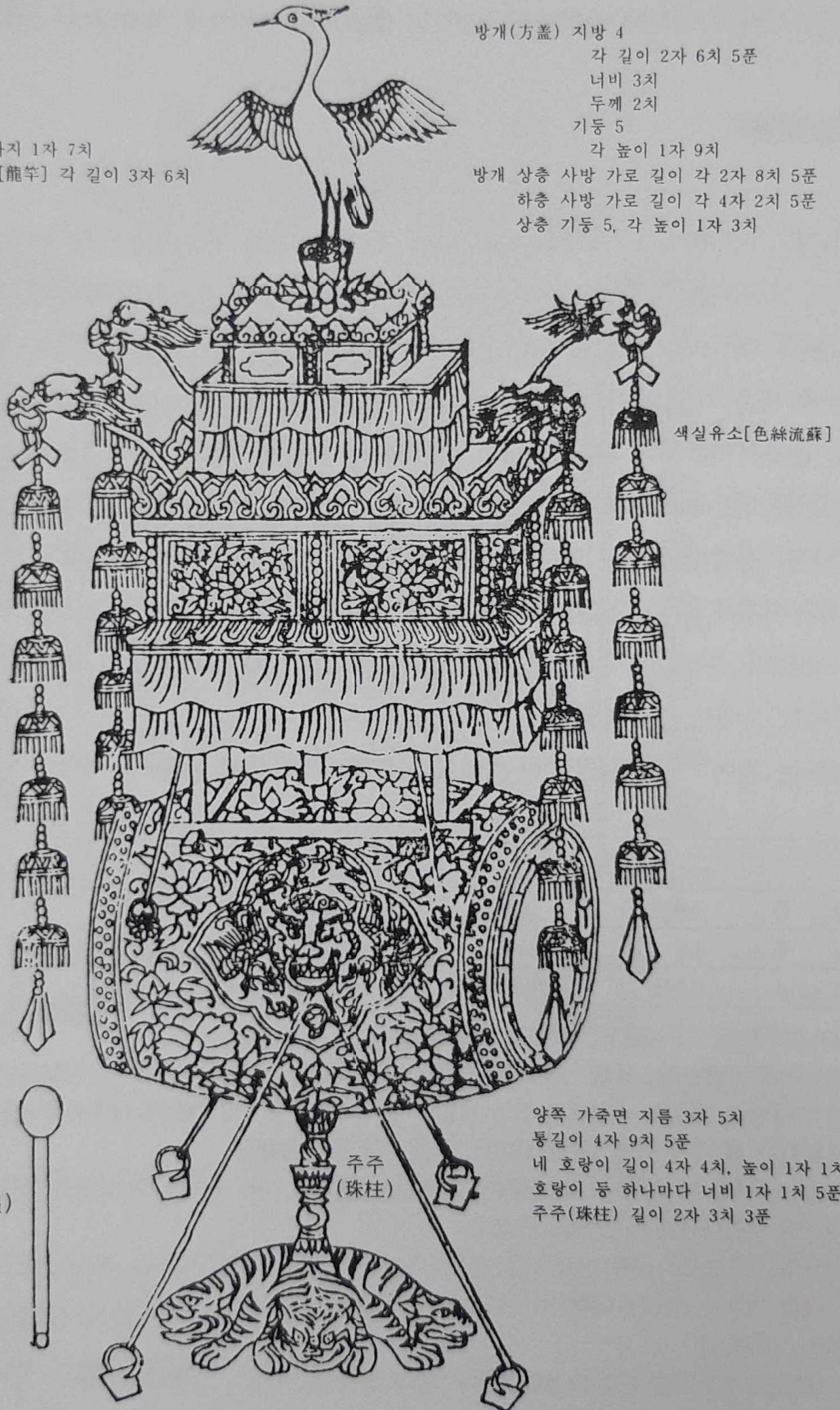
76) 殷과 같다.

77) 宋나라가 고려에 보낸 立鼓에도 분명히 白鷺子가 있다(『고려사』, 권70.8b).

상층에서 연꽃까지 1자 7치
네 모서리 용대[龍竿] 각 길이 3자 6치

방개(方蓋) 지방 4
각 길이 2자 6치 5푼
너비 3치
두께 2치
기둥 5
각 높이 1자 9치

방개 상층 사방 가로 길이 각 2자 8치 5푼
하층 사방 가로 길이 각 4자 2치 5푼
상층 기둥 5, 각 높이 1자 3치



목퇴(木槌)

색실유소[色絲流蘇]

주주
(珠柱)

양쪽 가죽면 지름 3자 5치
통길이 4자 9치 5푼
네 호랑이 길이 4자 4치, 높이 1자 1치
호랑이 등 하나마다 너비 1자 1치 5푼
주주(珠柱) 길이 2자 3치 3푼

78) 그 높이는 건고의 上層을 배설할 때 사닥다리[層橋]가 소용될 정도다(『인정전악기조성청의례』, 67a, 乙丑 3月29. 한음.자.총, 권23.52 上段).

79) 다음 설명과 먼저 그림의 珠柱라는 것이다.

상하층의 말[重斗]⁸⁰⁾과 상하층의 방개(方蓋)⁸¹⁾를 올려 놓고, 거기에 주망(珠網)을 치고 붉은 빛과 자줏빛의 수놓은 붉은 비단[絳紫繡羅]⁸²⁾의 휘장을 치고, 네 모[四角]에는 용대[龍竿]가 여섯 개⁸³⁾ 있어 모두 입에 유소(流蘇)를 물고, 그 둥근 구슬[璧璜]⁸⁴⁾은 오색 깃[羽]⁸⁵⁾으로 장식한다. 대머리[竿首]⁸⁶⁾는 나는 백로[翔鷺]이다. <건고는> 옆에 또 비고[鼙]와 응고[應]⁸⁷⁾의 두 작은 북을 좌우에 끼고 있다. 그러나 『시경』⁸⁸⁾에 ‘응전현고’(應田縣鼓)라 하였으니, 주제(周制)⁸⁹⁾에는 응고와 전고가 현고(縣鼓)의 옆에 있지, 건고(建鼓)의 옆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다.

상고하건대, 건고는 전정헌가(殿庭軒架)⁹⁰⁾에 쓰인다.

○ 북은 소가죽⁹¹⁾을 쓰고, 북통은 나무로 만들고 그것을 칠포(漆布)로 싸고 주칠(朱漆)을 하고 거기에다 모란꽃을 그린다. 조회(朝會) 연향(宴享)의 북 체제는 이와 같다. 제향(祭享)⁹²⁾에 쓰일 때에는 순검(純儉)하고 질소(質素)하여 칠포로 싸지 않고 본 바탕(本質)에다 주칠을 한다. <북통 머리의> 못[釘]과 고리를 입에 문 짐승의 머리[衝環獸頭]는 모두 발랍(拔籜)이고, 쌍봉(雙鳳)을 북통 양 옆에 그린다. 받침[跗]은 네 호랑이⁹³⁾ 모양으로 하고, 그 가운데에 주주(珠柱)를 꽂고, 그 주주는 북을 꿰뚫는다. 북 위에 가로목[橫木] 사방틀[方機]을 놓고,⁹⁴⁾ 거기에다 네 기둥을 세우고 모두 주칠(朱漆)을 하고, 네모진 개[方蓋]를 올려놓고,⁹⁵⁾ 홍초(紅綃)와 녹초(綠綃)로 두 휘장

80) 다음 설명 글에서 사방틀[方機]에 해당한다. 건고의 말[斗]은 전제 『고려사』 立鼓의 鼓斛과도 같다.斛은 열말들이 곡.

81) 전제 『고려사』 입고의 方輪과 圓輪에 해당하는 것 같다.

82) 다음 설명의 휘장(幃)에 해당한다. 휘장도 아래와 위에 각각 있다.

83) 먼저 그림과 다음 설명에는 6개가 아니고 4개이다. 乾隆10年 乙丑 『殿庭樂器造成廳儀軌』(규장각 도서 번호 14264, 23쪽)에도 龍竿四와 龍頭四가 한쪽을 이루고 있다.

84) 구슬은 다음 설명문의 彩珠에 해당한다. 전제 『고려사』의 “流珠四十二顆”에 해당된다.

85) 꿩깃 대신 다음 설명의 5색 실의 술[穗兒]을 쓴다.

86) 竿首의 竿은 4개의 龍竿이 아니고, 가운데 기둥이다.

87) 전제 『고려사』의 立鼓도 분명히 鼙鼓와 應鼓를 隨伴하고 있다. 비고는 왼쪽에, 응고는 오른쪽에 있다(『송사』, 권126 지79 약1).

88) 『시경』, 권19. 「周頌·有瞽」.

89) 전에 나온 明堂位에 殷은 楹鼓, 周는 縣鼓라 하듯이, 周制의 북은 殷制의 북과 다르다.

90) 『악학궤범』, 권2. 五禮儀와 時用(성종조)의 殿庭軒架 참조.

91) 生牛皮를 쓴다. 건고에 소용되는 物目은 『악기조성청의궤』(한.음.자.총, 권23.29~30쪽), 21a-23a에 자세히 써여 있다.

92) 제향에는 건고가 쓰이지 않고, 그 밖의 桴鼓·路鼓 등이 쓰이는 것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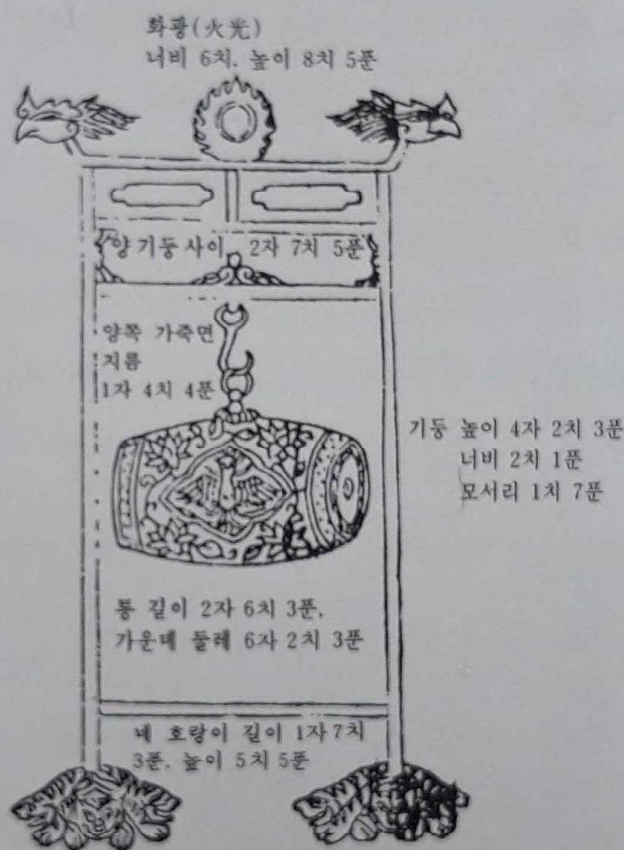
93) 四虎는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에 十字虎로 되었다.

94) 아래로부터 方機·下層方蓋·上層方蓋.(『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 22쪽. 한.음.자.총, 권23.29~30쪽)

95) 下層方蓋.

[檐]을 만든다. 절화(折花)를 그린 운각(雲閣), 복련(覆蓮)과 각판(刻板)은 모두 착채(着彩)를 한다. 네 모퉁이에는 용대(龍笄)를 꽂고, 그것은 각각 입에 채색구슬(彩珠)을 펜 유소(流蘇)를 물고 있고, 술(穗兒)은 오색 실을 쓴다. 방개(方蓋) 위에 또 작은 방개⁹⁶⁾를 올리고, 그 휘장도 아래층의 휘장과 같다. 연꽃을 작은 방개 위에 놓고, 나는 백로[翔鸞]를 올린다. 퇴(楹)는 나무로 만든다. 모든 북의 퇴도 이와 같다.

삭고(朔鼓)



『문헌통고』에⁹⁷⁾ “『의례』 대사례(大射禮)에 ‘건고(建鼓) 하나⁹⁸⁾는 남쪽에 있고, 동고(東鼓)와 삭비(朔鞀)⁹⁹⁾는 북쪽에 있다.’고 하였고, 『시경』에¹⁰⁰⁾ ‘응전현고(應田縣鼓)¹⁰¹⁾란 구절이 있

96) 上層方蓋

97) 『문헌통고』, 권136.12b.

98) 건고는 네 모퉁이, 즉 乾隅·艮隅·巽隅·坤隅에 놓는 법인데(『송사』, 권79.17a), 그 네 모퉁이 중의 하나를 말한다. 南東은 階階의 남동, 즉 남과 동이 만나는 모퉁이, 즉 巽隅를 말한다. 『악학개범』, 권4. 六花隊 초입배열도 참조

99) 『문헌통고』에는 東鼓가 鞀鼓로 되어 있다. 또 다음 설명문에 ‘삭고’는 또 ‘朔鞀’ 라고도 한다고 써여 있다.

100) 『시경』, 주 88) 참조